

# 작은 양보에도 억울한가요?



나는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어요

I can go through challenges wisely.

임진왜란(1592~1598년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한 전쟁)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이나 옥에 갇혔다 풀리면서 백의종군(비술 없이 일반 병사로 군대에 나가는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1597년, 전쟁이 다급해지자 조선 조정은 두 번째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에게 삼도수군통제사(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비술을 다시 내렸습니다. 당시 수군의 사정은 매우 나빴습니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전투선은 겨우 열두 척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의 힘이 약해서 적을 막아내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조 임금도 수군을 해체할 테니 육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臣)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을 감히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열두 척의 배로 적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명량대첩’입니다. 이순신은 결코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 등을 활용하는 한편, 치밀한 작전과 죽기를 각오한 용기로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험난한 여행에 비유합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하자면 높은 산도 넘어야 하고 거친 파도도 싸워야 하며 무서운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실로나 손해와 같은 일이 바로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고 친구와 다투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사회문제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피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겨우 열두 척의 배로 적과 슬기롭게 맞섰듯이 우리도 지혜와 슬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 \* 여러분이 최근에 겪은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어려운 일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 \* 앞으로 커 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I will try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불었다 뒀다 할 수 있는 접착식 메모지는 실수에서 생겨난 발명품입니다. 문구회사의 직원이 풀을 만들 때 원료를 잘못 섞는 바람에 잘 붙지 않는 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못 만든 풀은 모두 버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때, 또 다른 직원이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표시를 할 일이 많은데 잘못 만든 풀을 메모지에 칠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면 어때요?”

회사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잘 떨어지는 풀로 접착식 메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회사는 이 메모지를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일을 하다 벌어진 실수의 뜻밖의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수가 오로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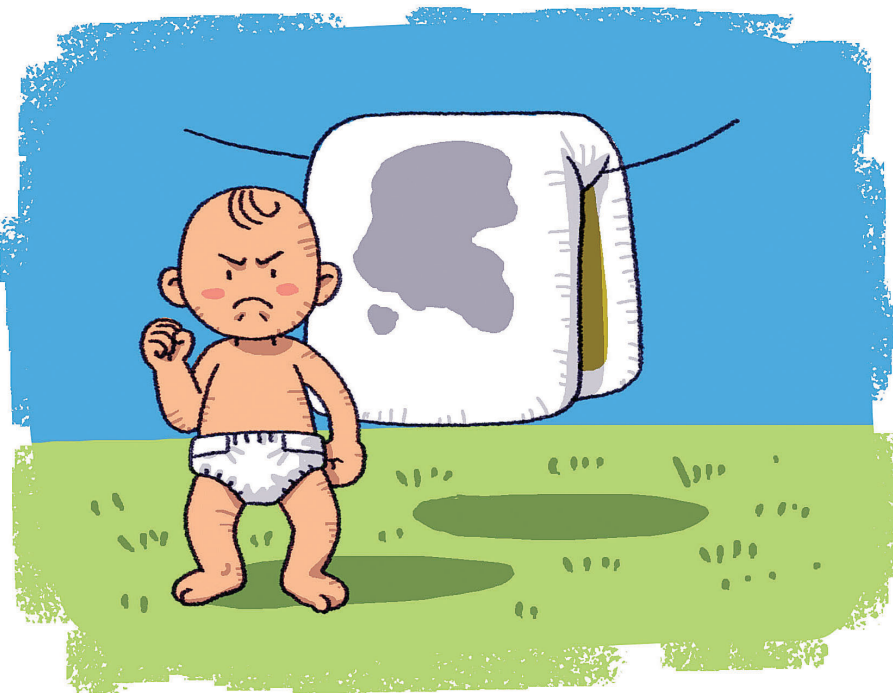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볼 때 많은 어린이가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왜 틀렸는지 곰곰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틀리는 것입니다.

실수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가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 되풀이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 기억에 남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수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 \* 반복해서 실수하는 일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아요.
- \* 반복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 혼자만 즐겁기 위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겠어요

I will not take other people's happiness just so that I can be happy.

몇 해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은 지 40년이 지난 낡고 위험한 건물 대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건물은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낡은 건물에서 공부하다가 새 건물이 지어지면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운동장에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 때문에 아파트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아파트와 새로 들어설 건물의 거리가 멀어서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건물은 낡은 건물을 헐어낸 자리에 짓기로 했습니다. 새 건물이 지어질 1년 반 동안 학생들은 공부할 교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 붙여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린이에게조차 양보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갈등을 불러옵니다. 물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에게 양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양보를 하고도 억울해서 씩씩댄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는 사회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끊임 없이 다투게 만듭니다. 오늘은 내가 이기심을 발휘해 조금 손해를 덜 봤더라도 내일은 남의 이기심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 여러분이 경험한 어른들의 이기주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나는 교실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 \* 이기주의는 주변에 어떻게 피해를 줄까요?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해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참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집합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법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 특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40×80cm 160g 30수 5,000원  
참회진언 타올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 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흥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명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에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창

### 반수가사(3땀가사) 특징

- 1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2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 3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협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